

#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 1. 기본정보

학과	관광경영학과	이름	최XX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Aberdeen
파견대학	Northern State University	파견기간	22.8~23.5 (2학기)
귀국여부	○		

##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제가 생활하던 애버딘은 미국 시골입니다. 중부인 사우스 다코타 주에 위치해 있으며 별이 잘 보이는 동네입니다. 재학생의 50%이상은 근처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란 친구들입니다. 학교 규모는 순천향대보다 작으며, 학교의 끝에서 끝까지 걸어서 10분 안으로 갈 수 있는 정도입니다. 도서관이나 체육관 시설이 좋은 편입니다.</p>
2022-2학기 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Marketing (Hannah) 수업은 강의식으로 진행하고, 가끔 수업 중에 한 내용과 활동들을 토대로 과제를 내주십니다. 교재는 구매하지 않았으나 문제없었습니다. 마케팅에 관해서 배우는데 내용도 어렵지 않고, 무엇보다 교수님의 영어가 알아듣기 쉬워서 추천합니다.</li><li>- Concert Choir (Timothy Woods) 교수님이 준비하신 곡들로 진행되는 합창 수업이라 부담 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학기말에 교회 공연도 하고 작은 투어 공연도 다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임했던 수업입니다.</li><li>- Fundamentals of Speech (Nuurrianti) 효과적인 말하기, 스피치 구성 방법, 청중 관심 유도 등 말하기에 대해서 배우며 총 3번의 발표에 따른 마인드맵, 아이디어 노트 등 간단한 과제가 있습니다. 대본 작성, 피피티 제작, 중간 점검, 동료 평가 등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편입니다. 현재 Nuurrianti 교수님은 다른 학교로 가셨습니다.</li></ul>

	<p>- Organization and Management (Shannahan) 조직 경영에 대한 수업이며 한국의 강의 방식과 가장 유사한 스타일의 교수님입니다. 매주 과제, 퀴즈, 시험을 번갈아 가며 진행합니다. 과제마다 정확하고 깔끔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주시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었습니다.</p> <p>- The United States History (Dias) 중간고사, 기말고사, 레포트 한 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업은 판서로 진행하는데 교수님이 약필이셔서 알아보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기간이 되면 필기 내용을 워드 파일로 정리해서 제공해주시고, 시험 기출 문제도 제공해주십니다. 무엇보다 교수님은 수년간 호스트 패밀리로서 한국인 키즈를 많이 만나셨기 때문에 한국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p>
2023-1학기 수업	<p>- Strings: Violin (Christopher) 소규모로 진행되는 바이올린 수업입니다. 아주 어릴 때 이후로 바이올린을 켜본 적이 없는데, 교수님이 정말 친절하시고 한국인들에게 우호적이신 편이셔서 수월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교재나 솔더 레스트는 개인적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학기말에 비기너 콘서트를 진행해서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p> <p>- Business Ethics (Sal Villegas) 경영 윤리에 대해 배우는데 내용상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매 수업마다 짧은 토론을 진행하며 위클리 과제, 개인 과제, 개인 레포트, 팀 토론, 팀 과제 등 과제가 정말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과제 제출을 늦게 하거나 조금 미숙해도 교수님이 교환학생인 걸 감안하여 평가해주시고 많은 피드백을 주십니다.</p> <p>- Business Leadership (Bockorny) 수업 내용이 어렵지 않으나 이론이 자주 등장해 암기가 필요합니다. 교수님의 학생들의 질의응답을 좋아하시고 쾌활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팀 과제, 개인 과제를 비롯한 작은 과제들이 많은 편이며 예정에 없던 과제가 추가적으로 생기는 등 개인적으로 혼란이 많았던 수업이었습니다.</p> <p>- Organizational Behavior (Shannahan) 경영 활동에 있는 행동 양상과 이론 위주로 학습하고, 과제 형식이나 수업 방식은 Organization and Management와 같습니다. 수업 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수업을 좋아하시는</p>

	<p>분들께 추천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culpture (Tim)</li> </ul> <p>도자기, 석고, 나무 등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조각하는 기초 조소 수업입니다. 가끔 랜덤으로 내주시는 리서치, 스케치, 영상 소감문 과제와 출석 체크가 중요한 편입니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진행되며, 개인의 프로젝트에 따라 재료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p>
<p>프로그램 운영</p>	<p>교환학생 오리엔테이션은 약 3~4일에 걸쳐 진행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꽉 채워서 진행하기 때문에 문화 설명, 학교 시설, 커리큘럼, 캠퍼스 투어, 은행 업무 처리 방법, 동아리 소개 등 다양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나라에서 온 교환학생 친구들을 미리 만날 수 있는 자리이고 가을 학기의 경우 브라운 카운티 페어라는 1년에 한 번 열리는 축제에 데려가 주기도 합니다. 이 외에 교환학생 대상의 프로그램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아리 박람회, 튜터링 등 전교생 대상의 이벤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다면 학교 측에서 보내는 메일이나 건물에 붙어 있는 포스터 등을 유심히 살펴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p> <p>노던에는 졸업생이신 분들과 교환학생을 매칭해주는 호스트 패밀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통 부모님 또래이거나 그 이상 연령대의 분들이시고, 주말마다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영화도 보고 놀러 다니면서 많이 챙겨 주십니다. 학기 초에 호팸 피크닉이라고 해서 다 같이 대면하는 자리가 있는데, 어필해야겠다는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고 신청하면 다 매칭해주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노던에 있으면서 가장 의지했던 분들을 만날 수 있던 좋은 기회였어요!</p> <p>교환학생 담당자는 제가 있는 동안 바뀌었는데 메일이나 연락의 답을 늦게 하거나 안 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용무가 있을 경우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는 것을 추천 드리고, 학업 관련은 어드바이저, 계좌 관련은 은행 등 직접적으로 연락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또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예전 교환학생들이 남기고 간 물건들을 챙길 수 있습니다. 저도 이때 챙겼던 냉장고와 주방 용품들을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p>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애버딘은 날씨가 춥고 눈이 많이 오기로 유명해요. 최저 온도는 영하 30도였고 11월 초에 온 첫 눈은 3월 말까지 녹지 않았습니다. 특히 제가 있던 동안에는 블리자드가 몇 번씩 찾아와서 폭설로 인한 휴교도 여러 번 했습니다. 블리자드 예보가 있다면 음식을 미리 사다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애버딘은 겨울이 굉장히 긴 도시예요. 그래도 저는 핫팩, 롱패딩 등 준비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추워서 힘들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또 아마존에서 전기 장판을 구매했고, 월마트에서 저렴한 겨울 부츠를 구매해서 겨울 내내 잘 활용했습니다. 키보다 더 큰 눈사람도 만들고 좋은 추억도 많지만 종종 눈 때문에 발이 묶여 기숙사 밖으로도 못 나가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 우울했던 날들도 있었어요.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분들이라면 참고해주세요!</p>
안전	<p>애버딘은 미국에서 정말 안전한 편에 속합니다. 물론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새벽 1~2시까지 놀아도 위험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교내에서 문지마 폭행 한 번이 있었고 그 외에는 별다른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우스 다코타주 특성상 연령대가 높은 편이고 보수적인 성향인데, 인종 차별도 가끔 있지만 무시하고 지냈기 때문에 문제될 것 없었습니다.</p>
숙소	<p>저는 2학기 모두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아마 교환학생은 기숙사가 필수일 거예요. 처음으로 썼던 기숙사는 맥웰시입니다. 가격은 1900달러 정도였어요. 한국인들이 첫 학기에 가장 많이 고르는 무난하고 저렴한 기숙사여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끼리는 한인타운이라고 부를 정도로 한국인의 비중이 많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1, 2층이 여자층, 3, 4층이 남자층이었던 것 같아요. 우선 맥웰시는 엘리베이터가 없고 1층에 공용 세탁실, 2층에 공용 주방이 있습니다. 저는 2층에 살았는데 2층의 화장실에는 세면대가 8개, 화장실 4칸, 샤워 부스 4칸 정도가 있어요. 욕조가 있는 넓은 샤워 부스도 1칸 정도 있습니다. 방은 2인 1실이고, 2층 침대에 책상 2개가 있어요. 책상에 붙박이 스탠드가 있고, 4단 수납장과 2칸짜리 책장이 달려 있습니다. 책상 앞에 코르크 보드가 있어서 사진 가져와서 방을 꾸미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또 붙박이장이 있고, 전신거울이 크게 붙어 있어서 나를 유용했습니다. 저는 잠자리를 크게 가리는 편이 아니라 괜찮았고 한 학기 정도 살만했습니다. 방의 위치에 따라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저의 경우 창문을 열면 바람이 잘 들어왔고, 주차장 쪽이어서 벌레가 많이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p>

가격이 가장 저렴한 기숙사여서 1인실을 쓰고 싶으신 분이라면 맥웰시 1인실을 추천합니다. (1900달러 +@) 서치를 하다 보면 맥웰시가 더울 때 덥고 추울 때 춥다는 말이 많은데 냉난방 이슈가 해결되어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추가로 사소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파견 전에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맥웰시 방을 보고 2층 침대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없는데 어떻게 올라가는 걸까? 생각했는데 그냥 옆에 있는 책상 밟고 올라가는 거였어요. 침대 난간도 없어서 위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적응되니 괜찮았습니다. 무난한 옛날 기숙사 느낌이에요.

두번째 학기에 살던 기숙사는 이스트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가격은 2400 ~ 2500달러였던 것 같네요. 이스트 선택 이유는 어차피 마지막 학기인데 기숙사에 돈을 조금 더 투자해서 삶의 질을 높여보자 라는 이유였고 결과적으로 만족합니다. 맥웰시와 다르게 이스트는 엘리베이터 기준 왼쪽으로 가면 여자 방, 오른쪽으로 가면 남자 방 이런 식으로 구분만 되어 있습니다. 신축이라 시설이 깔끔하고 1층에 교내 유일한 편의점, 층별로 스터디룸이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주방과 세탁실은 모두 1층에 있어요. 화장실은 프라이빗 화장실과 공용 화장실이 있는데, 프라이빗 화장실 칸은 변기, 샤워부스, 세면대가 하나씩 있어서 혼자서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용 화장실 칸 (성별 공용 x)은 샤워부스 4개, 화장실 칸 4개, 세면대 4개 정도가 있어요. 샤워실 센서가 5분에 1번 꼴로 꺼져서 RA라고 한국의 층장 느낌으로 도와주는 친구에게 말하니 해결 방법이 없다고 하더군요. 샤워실 문을 열고 밖에다가 손을 저어야 센서 인지가 되어서 나중에는 귀찮아서 그냥 불이 꺼진 채로 샤워를 했습니다. 이스트 방은 2인 1실이고 침대 2개, 책상 2개, 행거형 옷장 2개가 있습니다. 층고가 훨씬 높아서 넓게 느껴져요. 다만 수납할 공간이 너무 없어서 아마존에서 수납장과 신발장 등을 구매해서 사용했습니다. 침대 높이는 조절해서 쓸 수 있어요. 다른 방을 보니 침대를 최고 높이로 올리고 책상을 침대 밑으로 넣어서 벙커 침대처럼 활용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제 경험상 맥웰시와 이스트 모두 방음이 안되는건 똑같고 1층 현관은 카드 키를 긁고 들어가는 구조, 방은 열쇠로 열고 잠그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23년 2학기에는 맥웰시를 일시적으로 폐쇄하고 안 쓰던 다른 기숙사를 오픈한다고 해요. 시기별로 오픈하는 기숙사가 다르니 제가 쓴 후기는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강 주 금요일 안에 기숙사 방을 비워야 하는데, 시험 공부와 짐 패키징을 동시에 했어야 해서 굉장히 정신이 없었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에너지도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획해두고 행동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가을 학기에서 봄 학기로 (미국 기준 1학기 -> 2학기) 1년을 하는 경우

	<p>다음 기숙사 방에 짐을 미리 옮겨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봄 학기에서 가을 학기로 (한국 기준 1학기 -&gt; 2학기) 1년을 하는 경우 미국 기준 1년이 끝난 시점이고 긴 여름 방학이 시작되기 때문에 짐을 다음 기숙사에 넣어둘 수 없어요. 이 경우 보통 호팸 분들께 짐 보관을 부탁드립니다 하네요. 방 배정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랜덤으로 방과 룸메이트를 배정해주는데 원한다면 룸메이트 및 호실 지정이 가능합니다. 방 배정은 선착순이어서 저는 학기 말쯤에 미리 사무실에 가서 다음 학기 빈 방이 어디인지 물어보고 선점했어요. 만약 둘 중 한 명만 퇴실하고 한 명은 계속 살기를 원하는 방만 남아 있을 경우 그 친구에게 같이 방을 쓰자고 메일을 보내거나 직접 찾아가서 동의서를 받아와야 했습니다. 또 크래머라는 기숙사에 살던 제 친구는 새 방에 입주할 후 룸메이트 배정이 안됐는데 본인이 직접 룸메이트를 구하지 못할 경우 싱글 룸 차지를 내야 한다고 통보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일 처리가 답답한 상황이 많습니다. 급한 일이라면 직접 사무실에 찾아가서 용무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숙사 관련 모든 행정 업무는 스튜던트 센터 222호에서 처리할 수 있어요. 아무튼 맥웰시와 이스트에서의 기숙사 생활 모두 큰 불편함 없이 생활했습니다.</p>
<p>식사</p>	<p>교환학생은 매 학기 밀플랜 신청이 필수입니다. 밀플랜은 가격이 책정되어 있으며 학생증 카드에 플렉스 머니가 충전되는 형식입니다. 첫번째 학기에는 All flex (1500달러 요금제)를 선택해 사용했습니다. 이 플렉스 머니는 교내 식당인 덴, 카페 아인슈타인, 편의점 씨스토어 세 군데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덴은 뷔페 형식의 학생 식당인데 기본적인 맛입니다. 비빔 만두와 폭립이 맛있고 종종 한식 메뉴도 나옵니다. 디저트에 브라우니가 나오는 날 꼭 아이스크림과 함께 드셔보세요! 아인슈타인은 베이글 전문 카페인데 샐러드, 머핀, 파이도 있습니다. 페퍼로니 피자 베이글이나 스파이시 치킨 베이글을 추천 드립니다. 씨스토어는 음식을 조리해서 파는 편의점인데 음식 메뉴는 학기마다 달라집니다. 또 퀄리티가 좋진 않지만 샴푸나 휴지, 의약품 같은 생필품을 팔아서 급할 때 좋습니다. 물건들의 가격대는 월마트나 교외 다른 마트보다 비싼 편입니다. 플렉스 머니는 미국 기준 1학기에서 2학기 넘어가는 경우 이월이 되지만, 2학기에서 1학기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월이 되지 않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All flex를 사용하니 돈을 포인트 날리듯 흥청망청 쓰게 되고 필요 없는 군것질 등 과소비를 많이 하게 되어 두번째 학기에는 900달러짜리 밀플랜을 사용했습니다. 이 요금제는 덴 100번 이용권 + 200달러? 250달러 정도의 플렉스 머니를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사용해본 결과 생각보다 덴 100번을 가기가 힘들어서 남기고 왔습니다. 밀플랜은 변경도 가능하니 한번 경험해 보시고 본인의</p>

	<p>식사 패턴에 맞는 밀플랜을 선택하시면 좋을 듯합니다.</p> <p>직접 요리할 때는 주로 케슬러나 월마트에서 식재료를 사다가 해먹었습니다. 특히 미국은 소고기가 엄청 저렴해서 스테이크를 자주 구워 먹었어요. 인당 약 칠천원 정도면 소고기로 배 채울 수 있습니다. 또 다운타운쪽에 아시안 마트가 3군데 정도 있어서 거기서 재료를 구해서 외국인 친구들과 같이 한식을 만들어 먹기도 했습니다. 월마트에도 라면과 김치, 햇반 등을 팔고 켄즈는 좀 멀지만 한식이 많은 마트예요! 온라인으로는 H mart에서 분기별로 한번씩 주문했습니다. 냉동 식품류는 애버딘까지 배송이 올 수 없지만 그 이외에 다양한 한식이 그리울 때 애용했습니다.</p> <p>외식으로 추천할 만한 곳은 Three 22 (양식), Pizza ranch (피자), Sammy's (브런치), International kitchen (중식), Culver's (버거) 입니다. 카페는 Red rooster, Caribou 추천합니다. 또 Twist cone이라는 아이스크림 가게가 엄청 유명해요!</p>
<p>교통</p>	<p>애버딘은 시골이다 보니 주요 교통수단은 자가용입니다. 날씨가 괜찮으면 다운타운까지는 걸어 다니고, 그 이상 거리인 애버딘 몰, 월마트 등을 갈 때는 리프트를 타거나 차 있는 친구들과 함께 가거나 했습니다. 호팸에게 안 쓰는 자전거를 받은 친구는 자전거를 타고 여기 저기 다니기도 했어요. 또 애버딘 셔틀이라고 불리는 택시가 있기는 한데 가격적으로나 편의성으로나 큰 메리트는 없습니다. 옆 동네를 갈 때도 차로 3시간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본격적인 여행을 할 때는 무조건 미네소타를 경유해서 다른 도시로 이동해야 합니다. 또는 수폴스나 워터타운 등 근처 도시의 공항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한국 -> 미국 편도 200만원	
Fees	교환학생 비용 (150달러)	노던은 다른 미국 대학교에 비해서 교환학생 학비가 저렴한 편임 듣는 수업에 따라 수업료가 추가될 가능성 있음
보험료	노던 추천 보험	

숙소	학교 기숙사	학기마다 상이
식비	밀플랜	학기마다 상이
교통비		
책값	온라인 파일 (20달러)	60달러짜리 교재 온라인 파일을 친구 3명에서 나눠서 사용함
기타1		
기타2		
합계		

## 5. 출국 전 준비사항

사실 미국에 도착한 후보다 출국 전이 훨씬 할 일도 많고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여권 갱신, 비자 발급 같은 건 미리 해두시면 좋습니다. 공인 인증서도 갱신해서 가면 유용합니다. 추가적으로 보험은 한국에서 유학생 보험 드는 게 더 저렴해요! 노던에서는 지오블루를 추천하는데 한국 보험과는 가격 차이가 좀 나서 저는 다시 돌아간다면 한국 보험을 들었을 것 같아요. 또 저는 만일을 위해 건강검진도 전체적으로 받고 갔어요. 추가적으로 준비했던 파일들을 프린트해서 집에 여분을 챙겨 두었고, USB에 담아서 저도 챙겨 갔습니다. 휴대폰은 장기 정지를 신청했는데, 종종 문자로 본인 인증을 해야 할 일이 있기도 해서 문자 수신만 되도록 설정하고 온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짐은 정말 간략하게 싸도 됩니다. 저는 이민가방 1개, 큰 캐리어 1개를 들고 갔고 중간에 겨울 옷과 한국 음식은 택배로 1번 받았습시다. 한 학기가 종료되고 나면 한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물건을 기부하고 가기 때문에 더더욱 짐을 최소화하셔도 됩니다. 짐 많이 가져가면 나중에 짐 쌀 때 고생 정말 많이 합니다... 저는 버릴 것들 위주로 챙겼고 편하게 입을 티셔츠나 후드티, 레깅스들 위주로 가져갔는데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주 가끔 격식을 차릴 자리나 여행갈 때 등 예쁜 옷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1~2벌 정도 챙기셔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기 전에 영어 공부를 많이 하고 가야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을 보낸다 하더라도 준비된 사람의 흡수력이 더 빠르다고 느꼈습니다. 교환학생을 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최대한 빠르게 준비하세요!



## 6. 본인 소감 및 평가

저는 교환학생 생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해서 1년이 짧다고 느껴졌습니다. 시골이기 때문에 지루하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저는 그만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노던은 교환학생이어도 교내 알바가 가능해서 저는 2학기 내내 씨스토어에서 일했습니다. 이 외에도 덴이나 아인슈타인에서 알바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노던은 예체능으로 유명한 학교여서 높은 퀄리티의 운동 경기, 음악 공연을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교환학생으로 와 있을 때 여행 많이 다니시고, 미국 1학기에 맞춰서 지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1학기이기 때문에 신입생 입학식이나 각종 행사들이 많고, 다같이 새내기인 마음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또 택배 업체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제가 사용한 곳은 쉬핑투홈과 현대 해운입니다. 비슷한 비용인데 쉬핑투홈이 더 빨리 왔어요! 꼼꼼하게 작성하려고 노력했는데 향후 파견될 모든 교환학생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캠퍼스



학교 풋볼 경기



다운타운 거리



한식 파티



Three 22 외식



친구 생일 파티